

보도해명자료 (‘18. 8. 15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흑자 공기업 한전을 적자로 만든 주범은

‘탈원전’(‘18.8.15, 세계일보)

1. 기사 내용

- 정부가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사장을 내쫓고 예방점검 명목으로 원전 10여기를 한꺼번에 세웠음
- 정부는 올 하반기에 원전 이용률을 높이기로 했음

2. 동 기사에 대한 산업부 입장

- 정부가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사장을 내쫓고 예방점검 명목으로 원전 10여기를 한꺼번에 세웠으며, 정부가 하반기에 원전 이용률을 인위적으로 높이기도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
- ① 전임 한수원 사장은 일신상의 사유로 자발적으로 사임한 것임
- ② 상반기 원전 이용률이 낮은 것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원전 가동을 중지했기 때문이 아니라, 격납건물 철판부식, 콘크리트 공극 등 과거 건설 원전의 부실 시공에 따른 보정 조치 등으로 인해 원전 정비 일수가 증가했기 때문임
 - * 격납건물 철판(CLP; Containment Liner Plate) 부식 발견 원전 총 9기, 콘크리트 공극, 철근 노출 등 발견 원전 총 11기
- 또한, 이번 정부에서 원자력안전 법령 등을 통해 원전 안전 기준을 신설하거나 강화한 것은 없음



- 오히려, 지난 정부에서 후쿠시마 원전사고 및 경주지진의 후속조치로 내진 성능 등에 대한 안전기준이 강화된 바 있음
 - ③ 하반기 원전 가동 일정은 원자력안전 법령에 따라, 예방점검을 하는 한수원이 자체적으로 전망한 것이며, 정부가 인위적으로 이용률을 낮추거나 높일 수 있는 것이 아님
- ※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정중영 과장(044-203-5320)
홍충완 사무관(044-203-5319)

참고

'18년말 가동원전 전망(원안법 절차에 따른 한수원 전망 기준)

본부	호기	'18.8.14 기준	'18.12.31 기준
고리	고리2	x ('18.4.17~10월)	○
	고리3	○	○
	고리4	○	○
	신고리1	○	○
	신고리2	○	○
새울	신고리3	○	○
한빛	한빛1	○	○
	한빛2	x ('18.7.16~10월)	○
	한빛3	x ('18.5.11~하반기중)	○
	한빛4	x ('18.5.18~'19.2월)	x ('18.5.18~'19.2월)
	한빛5	○	○
	한빛6	○	○
월성	월성1	x (폐쇄결정)	x (폐쇄결정)
	월성2	○	
	월성3	x ('18.6.11~하반기중)	○
	월성4	○	○
	신월성1	○	○
	신월성2	○	○
한울	한울1	○	○
	한울2	○	○
	한울3	○	○
	한울4	○	○
	한울5	○	○
	한울6	○	x ('18.12.1~'19.2월)
가동중 원전 수		18	21
정비중 원전 수		5	2
폐쇄결정		1	1
합계		24	24

※ 불시정지 및 점검과정에서의 정비현안 발생시에는 변동 가능